

#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 논의를 위한 이론적 접근

## Discussions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Librarianship as a Profession

김기영(Gi-Yeong Kim)\*

### 목 차

- |                        |                       |
|------------------------|-----------------------|
| 1. 서론                  | 3. 사서직 전문직화의 목적과 당위성  |
| 1.1 연구의 관점             | 4. 전문직으로서 사서직의 특성     |
| 1.2 연구의 범위             | 5. 사서직 전문직화 논의를 위한 개념 |
| 1.3 사서직의 개념            | 6. 결론                 |
| 2. 문헌정보학 분야 전문직 논의의 특징 |                       |

### 초 록

한국 사서직의 전문직화의 목적을 사서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보로 파악하고, 이를 위한 논의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과 그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 논의의 특성을 기능주의, 봉사정신 및 이타성 강조, 및 개인성으로 파악하였고, 사서직 직무의 조직중심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배경으로 사서직화 논의를 위한 개념으로 전문적 지식, 서비스, 조직중심, 그리고 시장개념과 그들의 상호연관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의 제시가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 ABSTRACT

Based on that the purpose of professionalization in librarianship is to achieve social recognition of its specialty, we discuss about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e professionalization in librarianship in Korea. Some characteristics from the previous discussions are identified, such as functionalism, altruism in service, and individualism. Also, we identify organization-centered characteristic as an inherent one in librarianship.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identified, we discuss about some supportive concepts, such as advanced or complex knowledge, service, organization-centered characteristic, and market, and their interrelationships. We hope such concepts would encourage further discussions on this topic for the professionalization.

키워드: 사서직, 전문직, 전문직화, 서비스, 조직중심, 도서관서비스시장  
Librarianship, Profession, Professionalization, Service, Organization-centered,  
Library Service Market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gkim@yonsei.ac.kr)  
논문접수일자 2008년 2월 25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3월 25일

## 1. 서론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에 대한 논의는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 꾸준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들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되어 왔으나, 그러한 논의들의 목적하는 바, 즉 사서직의 전문직화를 달성하는 데에 효과적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현장에 근무하는 사서들의 전문직으로서 사서직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과 이에 대한 회의적 논의들에서 찾을 수 있다. 1997년부터 시작된 도서관매일링리스트는<sup>1)</sup> 도서관계의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왔으며, 2008년 2월 1일 현재 18,250개의 글들이 글목록에 올라 있는데, 이 목록에서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에 대한 토의는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그리고 2007년에<sup>2)</sup>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의 내용들은 다양해지는 경향이 있으나 현장 사서의 사서직의 전문직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서직의 꾸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들이 목적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논의의 이론적 틀이 고착되어 있거나, 명료하지 않거나, 부재하기 때문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그간 진행되어 온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에 대한 논의들을 고찰하고, 논의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아봄으로써 전문직 논의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향후의 논의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1.1 연구의 관점

본 연구는 국내의 사서직의 전문직화(professionalization)를 그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다. 지역적 범위를 국내로 제한하는 이유는 전문직은 사회적 집단이며, 사회의 형성과 변동은 전세계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다. 구혜란은(2003) 전문직 자율성에 대한 논의에서 기존의 기능론적 접근과 권력중심적 접근의 단점으로 전문직 자율성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 사회에서의 비교역사적 접근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국내의 사서직의 전문직화에 대한 논의가 여타 국가와 동일한 접근으로는 그 환경의 차이로 인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논의의 대상을 국내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지역의 단위를 국가로 정의한 것은 전문직에 대한 논의가 여타 사회집단보다 국가에 가장 긴밀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전문직 자격의 인정은 국가단위로 이루어지며, 전문직 교육제도 또한 국가의 통제 하에 있다.

또한 사서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제한은 여타 전문직의 구체적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

1) <http://www.domeri.or.kr>

2) 1998년: 글번호 1428, 1437, 1440, 1456, 1472, 2669  
 1999년: 글번호 4803, 4806, 4817, 4818, 4820, 4822, 4824, 4877, 5447  
 2000년: 글번호 5900, 5903  
 2001년: 글번호 10799, 10808, 10815  
 2007년: 글번호 18003

을 사서직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전문직인 의사 혹은 변호사의 전문직적 조건을 선결조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전문직이라는 계층이 사회적으로 먼저 존재하였고, 의사나 변호사 집단이 일정한 전문직적 조건을 만족하여 전문직이 된 것이라기 보다는 의사나 변호사 집단이 전문직이라는 개념을 생성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데 요구되는 특성들을 추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구체적 전문직업성은 직업마다, 사회마다, 또한 시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관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상의 제한이 연구문헌의 제한 혹은 고려사항의 제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미국 의사직의 전문직화는 한국 사서직의 전문직화에 일정 정도 참조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직 논의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결과물들을 참고할 것이다. 여기서 전문직이 가지는 여러 특성들에 대한 고려의 기준점은 현재 국내 사회에서의 전문직 인정에 대한 각 특성들의 영향력 여부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전문직 및 사서직,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개념들에 대한 문헌정보학계에서의 논의들을 먼저 알아보고, 전문직에 대한 사회학에서의 논의들을 알아본다. 그리고 국내에서 전문직화를 피하는 다른 몇몇 분야의 논의들도 함께 고찰한다. 이를 통하여 사서직의 전문직화 그리고 문헌정보학에서의 전문직에 대한 논의를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 1.2 연구의 범위

문헌정보학내에서 전문직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대체적으로 논의들의 목적은 사서직의 전문직화에 맞추어져 있는데, 김용근은(2002) 국내 사서직의 전문성에 관한 논의를 지식, 윤리성, 그리고 자율적 통제에 의한 논의로 구분하고, 지식에 대해서는 사서직 교육의 교과과정, 계속교육, 그리고 개별도서관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김용근 2005)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논의를 전문성 및 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한 논의로 나누고, 전문성에 대한 논의를 전문성 강화, 전문성 기준, 그리고 전문직윤리로, 그리고 전문성 제고방안을 자격제도, 교육제도, 문헌정보학 연구, 그리고 사서직단체 활동에 대한 논의로 세분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전문직 논의의 측면들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사서직의 전반적 특성에 관한 논의이고, 둘째는 전문직의 개별 특성을 대상으로 한 논의이며, 마지막으로 사서직의 변화에 관한 논의이다. 전반적 특성에 관한 논의들은 엄영애(2004), 이병목(2004), 이제환(2003), 이용훈(2002), 이은철과 김갑선(2002), 그리고 박인웅(1997) 등의 연구를 들 수가 있다. 개별특성에 대한 논의는 세부적으로 사서직 교육(엄영애 2007; 윤영대 2003; 엄영애 1998a; 1998b), 계속교육(황옥경 2006; 임동빈 2001; 윤소정 1997), 사서직제(윤희운 2005a; 2005b; 조찬식 1996a), 사서직의 자격(최상희 2007; 남태우 1996; 정연경 1995), 그리고 전문직 윤리(김혜경, 남태우 2004)에 대한 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서직의 변화에 관

한 논의로는 안인자(2005), 이명희(1999), 조찬식(1996b), 그리고 전명숙(1996) 등의 논의를 들 수 있으며, 대체로 사서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업무의 변화를 그 주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서직의 전반적 특성 및 변화에 관한 논의를 그 검토대상으로 한다.

### 1.3 사서직의 개념

먼저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대략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우선 사서직은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이란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문헌정보학 관련 정보전문직이라는 견해이다. 안인자(2005)는 정보가 도서관의 영역을 떠나는 것을 정보서비스의 정통성이 사서의 영역을 떠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사서직을 도서관 전문직으로 국한하였으며, 엄영애(2004)도 정보전문직을 사서직과 경쟁관계로 설정함으로써 사서직을 도서관 전문직으로 규정하였다. 이용훈(2002) 또한 사서를 유사 직군과 구분하고, 도서관을 사서의 활동무대로 정의하면서 도서관 전문직으로서의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병목(2004)은 사서직은 문헌정보학 관련 정보전문직이며, 사서는 전문직적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현재 실무에 있는 정보전문직뿐 아니라 미래에 실무를 할 가능성이 있는 유자격자까지를 사서직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 중 전문직 논의에 적합한 견해는 후자의 것, 즉 정보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이 좀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근거는 사서직 교육의 근간이 되는 대학 문헌정보학과 및 도서관학과의 교육목표가 도서관전문직에만 국

한 된 것은 아니므로, 도서관전문직 견해에 따르면 전문직 교육 논의가 제한될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사서의 전문직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2005)의 개인회원자격이 현직 사서뿐 아니라 사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그 근거가 될 것이다. 참고로 한 문헌정보학과(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2006)의 전공소개에는 전공자의 진로를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전문직 사서, 정보전문가, 정보기술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때에 현직사서 혹은 전문직 사서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뿐 아니라 여타 기관의 사서들도 포함하고 있으며(도서관 및 정보센터), 따라서 '도서관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 개념은 사서직 논의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즉, 사서직을 도서관 전문직으로 규정하면, 도서관을 포함한 정보전문직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 대해서 사서직만을 위한 전문 교육이라고 할 근거가 희박해지며, 이는 전문직의 한 조건인 직업을 뒷받침하는 학문의 존재에 대한 근거가 약해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병목의 견해에 따라 사서직이라는 사회집단을 도서관 및 관련기관에 근무하는 정보전문직, 그리고 그러한 정보전문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집단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사서직 범위의 규정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든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사회학적으로 사회집단, 계층, 혹은 계급의 존재는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의 정체성에 근거한다. 즉, 전문직 집단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전문직 집단의 구성원이 스스로 그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서

직에 대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을 도서관에 속한 현장사서로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사서의 자격을 가지고 도서관 유관조직에 근무하는 자 또한 사서직에 강한 소속감 및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현실이다. 더 나아가 사서직 교육과정에 있거나, 사서직 자격을 갖춘 미래의 전문직들도 이 같은 정체성을 보이는 경우가 흔히 있다.<sup>3)</sup> 따라서 사서직을 도서관 전문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문헌정보학과 관련된 정보전문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전문직 논의에 적합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이 후로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및 정보센터를 포함한, 사서가 사서 고유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조직 혹은 하부조직을 의미한다.

## 2. 문헌정보학 분야 전문직 논의의 특징

전문직(profession)이란 일반직업(occupation)과 구분되는 직업군으로 하나의 명료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운 개념이다. 『최신 문헌정보학의 이해』(한국문헌정보학회, 2006, 95)에서는 Oxford English Dictionary에서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분야의 학문이나 과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타인의 일에 적용하거나 또는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한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는 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동열과 조찬식(2007, 177)은 “사회의 제도와 문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기초로 하여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문제의 해결을 구현

하는 직업계층”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직은 개인이 아닌 직업자체, 혹은 그 직업계층을 가리키며,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직업군임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책임과 봉사의 개념이 포함됨을 유추할 수 있다.

전문직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이러한 사전적 정의는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대부분의 전문직의 논의에서 전문직의 개념은 직업으로서 또는 직업집단으로서 전문직이 가지는 특성들을 나열함으로써 이해된다. 한 사회학 사전에서는 전문직을 주로 난해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으로서, 그 특성으로 자율성(autonomy), 직업전문성에 대한 독점적 통제, 하위직의 지배, 국가의 지지, 그리고 윤리강령의 존재 등을 꼽았다(White 2006). 이러한 사회학적 특성은 전문직을 하나의 직업으로 보고 있다기 보다는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계층으로 보고 있다. 이 때 전문직은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국가권력의 지지를 매개로 한 전문직 계층의 자율적 권력의 확보와 타 직업군에 대한 배타적, 지배적 관계를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한편 문헌정보학에서 전문직의 특성은 좀 더 직업으로서의 특성, 즉 전문직의 사회에서의 인정을 위한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신 문헌정보학의 이해』(한국문헌정보학회 2006, 96)에서는 이론적 지식에 기반한 기술, 교육과 훈련, 능력의 검증, 전문직 조직, 윤리강령, 봉사정신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문헌정보학 내의 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엄영애(2004)는 기능적 측면

3) 유관조직 근무자의 예로서는 도서관 메일링리스트 글번호 303, 교육과정생의 예로서는 글번호 2669, 4877등을 참고할 것.

을 강조한 McClure와 Herman이 제시한 21가지의 전문직특성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찬식(1996)도 전문직의 특성을 법적 기반, 사회에의 봉사, 지식 및 교육제도, 전문직단체, 대중의 인식 등으로 제시하여 이러한 기능적 관점을 나타내었다. 이제환(2003)은 사회학에서 논의되는 전문직 이론을 섭렵하여 이러한 기능주의적 이론과 권력의 변동을 중심으로 전문직을 바라보는 권력이론 등 다양한 관점의 전문직 논의를 개관하였으나, 결론적으로 기능적 특성과 권력이론적 특성을 모두 “일정한 요건”이라는 기능주의적 개념으로 환원한 듯이 보인다.

문헌정보학에서의 전문직 논의의 또 다른 특징은 봉사, 사회에의 기여, 이타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한국문헌정보학회 2006, 95; 엄영애 2004: 구분영 2003, 12). 이는 도서관의 업무를 정보봉사, 기술봉사, 도서관봉사 등 “봉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특기할 것은 학계의 전문직에 대한 개념은 구미의 것을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원전의 “봉사”라는 개념에 대응되는 낱말은 “service”라는 것이다. 『최신 문헌정보학의 이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p.95).

“...현재는 대부분 상품을 만들어 배포하는 데에 종사하기 보다는 특정직업의 구성원들이 봉사하는 직업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표현의 인용된 문헌의 표현은 다음과 같다

“At present the term(profession) usually denotes certain occupations whose members give service rather than engage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goods”(Elias, 1964)(괄호는 저자 삽입)

이 때, 서비스란 상품 제조업 및 유통업과 대별되는 서비스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대체로 役의 의미로 통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재화에 반하는 용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당하지만, 용역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Service는 쓰임, 근무, 병역, 봉사, 공공사업 등의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봉사의 의미는 그 의미상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쳐지는 것이 사실이다. 한 영어사전<sup>4)</sup>에서는 15개의 의미 중 네 번째이며 『YBM 올인을 영한사전』<sup>5)</sup>에서도 16개의 의미 중 네 번째로 나타난다. 한편 봉사의 의미는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애써 일하는 것’이란 의미<sup>6)</sup>만 있고 일반적인 役이란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봉사 및 이타성은 도서관 서비스의 공공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문직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사서직의 윤리강령으로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서비스의 공

4)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4<sup>th</sup> Ed. 2006. Boston, MA: Houghton Mifflin Company.

5) 『YBM 올인을 영한사전』, 2007. 서울: YBM시사닷컴.

6)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연세한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공성을 기반으로 한 사서직에 대한 윤리강령으로 봉사 및 이타성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서비스를 경제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면, 전문직의 특성으로서 '서비스'를 대체한 '봉사'의 개념은 교환을 전제로 하는 '시장'을 무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왜냐하면 서비스는 경제적인 교환을 전제로 하지만, 이에 비해 봉사는 그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를 예상하지 않은, 즉, 일방적 제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전문직은 직업군의 일부이며, 각 직업은 그 직업만의 시장을 가진다. 전문직은 다른 직업군과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시장을 확보한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전병재 등은(1995, 45) 전문직화는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독점화의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White(2006) 또한 전문직의 특성으로 전문영역에 대한 독점적 통제를 꼽았다. 물론 모든 전문직이 교환을 기반으로 한 시장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며 군대와 성직처럼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전문직도 있다(Larson, 1977; Macdonald 1995에서 재인용). 사서직이 이러한 교환을 기반으로 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가는 후에 논의하겠지만, 적어도 서비스란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사서직이 기여하는 시장의 존재가능성은 보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개념은 사서직을 이해하는 데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더 논의하도록 한다.

봉사 혹은 이타성의 개념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학에서는 반대로 사회적 집단의 동인은 집단이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전문직 집단의 동인이 전적으로 이기적인 것만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Macdonald 1995). White(2006)의 정의에 따

르면 전문직은 그 직업의 윤리강령에 따라 고객 혹은 의뢰인(client)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타성에 대한 상반된 논의는 전문직을 개인으로 보고 있는지 집단으로 보고 있는지에 따라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의사 개인이 진료 시 자신의 이해관계보다는 환자의 이해관계를 우선시 하는 것과, 의료전문직 단체가 사회의 보건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의사 개인의 이타성은 White의 정의에 따라 그 전문직 단체의 윤리강령으로 강제, 혹은 권장되는 것이며, 의료직 단체의 이타성은 윤리강령보다는 단체가 스스로 설정한 단체의 사명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Macdonald의 견해를 지지한다.

전문직의 특성으로서 이타성을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전문직에 속한 개인의 이타적 행위와 사회의 전문직에 대한 인식에 대한 영향관계가 애매하게 된다. 즉, 개인의 이타적 행위는 그 개인의 전문직여부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행위이므로 그러한 개인의 이타성을 집단에 대한 인식과 연결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이타성, 즉 서비스수혜자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행위는 여러 직업들 중에서 전문직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이다. 전문직이 아닌 여타 서비스직에서도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형태는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개인의 이타성 및 봉사정신의 강조를 전문직의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는 서비스수혜자의 이익을 강조하는 것이 이타적인 행위인지 서비스상품의 합당한 거래를 위한 행위인지도 분명치 않다는 의미이다. 즉, 개인의

봉사정신 및 이타성은 전문직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전문직의 윤리강령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직의 전문직성에 대한 논의에서 이러한 개인의 봉사정신 및 이타성을 강조하는 것은 문헌정보학에서의 전문직 논의의 주요한 특성으로 파악될 수 있다.

문헌정보학에서의 전문직 논의의 마지막 특징은 봉사정신 및 이타성 논의에서 같이 언급한 개인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전문직의 위상을 확립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개인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는 관점, 사서직 모두가 각자 업무에 충실하게 임한다면 전문직으로서 사회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논의의 개인적 특징은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논의들, 즉 사명감을 가진 개인의 적극적 봉사가 전문직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논의들(엄영애 2004; 이병목 2004; 이용훈 2002)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용어(전문성 specialty, expertise, 전문가 specialist, expert)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용어(전문직profession, 전문직성 professionalism)의 혼용(김용근 2005)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사명감 고취 및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전문직 교육 강조(김용근 2005; 엄영애 2004)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봉사정신 및 이타성의 강조라는 전문직논의의 두 번째 특징은 이러한 개인성과 연결되어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사서직의 전문직화는 사서 개개인의 노력, 혹은 성실한 사서업무의 수행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노력 및 업무수행의 동인을 봉사정신과 이타성이라는 윤리 혹은 사명에서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사서직 논의가 개인적인 것은 아니다. 많은 논의들이 사서직의 전문직화를 위한 노력 혹은 조건으로 전문직단체로서의 도서관협회의 역할(김용근 2005; 엄영애 2004) 및 전문직 진입 통제를 위한 국가의 지지(이은철, 김갑선 2002)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 이론 및 지식에 근거한 전문직 종사자의 개인적 성실성이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관점은 다른 분야에서의 전문직논의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점이다.

정리하면 문헌정보학에서 전문직성 논의의 특징은 기능주의적 관점이 지배적이며, 봉사정신을 강조하며, 개인의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들을 들 수 있으며,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특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인의 성실성에 달려있다는 관점이, 개인의 성실성에 대한 동인으로서의 봉사정신 및 이타성의 강조에 영향을 주었고, 전문직 논의가 집단의 특성보다는 개인의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기능주의적 성격을 보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사서직은 왜 전문직을 지향하는가, 전문직화를 통해 사서직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사서직의 전문직화가 사서직의 목적에는 부합하는 것인지를 논의한다.

### 3. 사서직 전문직화의 목적과 당위성

앞서 언급한 전문직에 대한 이전 논의들과



도서관매일링리스트를 통해 나타나는 실무에 종사하는 현장사서의 의견을 대체로 살펴보면 사서직이 전문직이다, 혹은 전문직이어야 한다는 데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문제는 사서직은 전문직이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전문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현실간의 괴리에 있다. 그렇다면 사서직은 전문직화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서직의 전문직화에 정당성을 제공해 줄 것이다.

Roos(1992)는 노동자들이 전문직화를 원하는 이유를 더 높은 수입과 더 높은 위세(prestige) 그리고 더 강력한 직업자율성(job autonomy) 때문이라고 하였다. 박종연(1993)은 전문직은 일의 만족도와 보람이 높고 사회적 위세나 소득, 권력 등으로 평가되는 직업지위가 높은 직업들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때 사회적 위세나 소득, 영향력 등은 사회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전병재 등 1995). 즉,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로는 ㄱ) 사회적인 위세, ㄴ) 영향력과 자율성의 기반이 되는 권력, 그리고 ㄷ) 경제적 수입 혹은 소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때 사회적 위세는 타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강제하는 영향력 및 권력과는 구별됨으로써, 명성, 명예, 혹은 사회적 인정 등의 개념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문직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 중 사서직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사서직의 전문직화의 목적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사서직의 전문직 논의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사회적 인식'이다. 사서직의 전문직 인식 및 업무에 대해 조사한 엄영애의 연구(2004)에서 절반 이상의 응

답한 사서들이 이용자들의 사서에 대한 인식이 부재함을 전문직화의 문제점으로 꼽았으며, 사서직의 교육, 지식, 채용, 승진제도의 문제, 전문직 단체의 문제등도 사서에 대한 대중의 인식부족의 원인이 되는 요소로서 사서들은 인식하고 있다. 즉, 사서직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서직이 사회적 인식을 획득하는데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로 파악하고 있다(물론 이 양자간의 실질적 영향관계는 좀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소득의 문제와 권력의 문제는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용훈도(2002) 사서들이 전문가로서 인정받지 못한 이유를 사서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부재로 꼽았다. 이러한 사서들의 인식은 사서들이 전문직화를 통해서 전문직이 가지는 권력이나 소득 보다는 사회적 위세를 확보하는 데에(적어도) 일차적인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사서직의 전문직성 및 전문직화 논의가 다른 전문직 분야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1990년대 이후로 활발한 의료직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소비자주의의 확산(의료분쟁 빈발), 전문직 집단간의 갈등(의약분업), 국가의 전문직 자율성 침해(의약분업, 의료보험제도) 등(박종연 1993)에 의한 권력과 소득에의 변화가 그 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한국사서직의 전문직화의 의도, 혹은 한국 사서직의 지향점이 사회적 인식의 확보 혹은 사회적 위세의 획득이라고 보았을 때, 의료직과 사서직의 전문직 논의는 큰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전문직의 특성 및 개념에 대한 인식이 각 직업별로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도 있다. 의료직은 소비자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의료직 권위의 축소, 국가권력의 전문직 자율성 침해 등을 통해 의료직의 전문직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은 직업사회학에서는 일반적인 것으로 이를 비전문직화(deprofessionalization), 혹은 프롤레타리아화(proletarianization)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주요 요건을 전문직 자율성의 침해로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위의 의료직 변화현상 외에 전문직의 조직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전문직의 전문성 침해 등을 들고 있다(Roos 1992; Calhoun 2002).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서직과 같이 전문직화를 피하는 직업군에서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전문직화를 위한 논의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전문직에 대한 인식 및 전문직화의 의도가 직업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 논의에서 타 전문직 분야의 논의를 참조할 때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전문직의 특성 또한 모든 직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는 어떤 직업의 전문직화에는 주어진 전문직의 사회적 특성의 보유보다 전문직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획득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러한 시각이 현재 일반적인 전문직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래도 현재 전문직으로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직업은 그러한 전문직성이 사회적 인식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의 획득을 위한 전문직성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본 연구의 시각이다. 이는 전문직을 바라보는 시각의 시간적 변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960년대의 전문직의 구분은 전문직과 비전문직으로 이분하여 보았다(Elias 1964). 전문직 특성은 명료했으며 한 직업은 그러한 전문직 특성을 모두 보유해야 전문직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1990년대의 전문직에 대한 시각은 전문직을 하나의 연속체로 파악하였고, 이러한 연속체의 제일 상층부에 전통적 전문직, 두 번째 전문직 계층으로 신전문직, 그리고 준전문직, 연속체의 제일 하단에는 보조전문직<sup>7)</sup>을 위치시켰다(Roos 1992). 이에 비해 2000년대의 전문직 구분은 연속체로서가 아니라 각각이 독립적인 특성을 지닌 몇 가지 전문직종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자유전문직(liberal professions), 조직중심 전문직(organizational professions), 그리고 기업가형 전문직(entrepreneurial professions)이며, 그 예로 의료직, 교사, 경영컨설턴트를 각각 들었다(Carter 2007).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전문직 외에도 많은 직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문직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획득하게 되었고, 전문직 내에서의 계층적 차이도 약화되는 현상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문직성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본 연구의 시각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서직의 사회적 인식 혹은 위세의 획득을 위한 전문직화는 긍정적이며 정당한가. 이는 사서직의 주요 활동무대가 도서관이므로

7) 전통적 전문직(classic or status professions): 의료직, 법률직, 교수 등  
 신전문직(newer professions): 치과 의사, 기술자, 건축가, 회계사 등  
 준전문직(marginal professions and semiprofessions): 약사, 간호사, 교사, 사서 등  
 보조전문직(papraprofessionals): 법률보조원 등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도서관의 목적 및 사회적 역할의 논의는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도서관의 목적이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고 도서관의 목적과 사서직의 전문직화의 관계에 대해 간단히 논의해 보고자 한다. 물론 이 둘간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지만, 이 또한 논의의 중심을 벗어나는 일이며, 여기에서는 사서의 전문직화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사서직의 사회적 역할은 도서관서비스로 구현된다. 일인사서가 근무하는 곳도 '사서사무소'라기보다는 '일인도서관'(one-person library)으로 칭한다. 이러한 조직에서의 업무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경영학에서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동기부여(motivation)을 강조하고 있으며, 조직에서는 동기부여를 위한 욕구분석과 효과적인 보상체계의 확립에 주의를 기울인다(신민식, 권중생 2006). 동기부여는 결국 조직 구성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용하여,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하는 행위를 유발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함인데, 이에 따라 인간의 행위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 Dessler와 Starke(2004)는 성격, 능력, 자아개념, 지각, 그리고 태도가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때 자아개념(self-concept)은 자신의 존재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스스로의 지각이라고 할 때 정체성<sup>8)</sup>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의 위상 확립은 사서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보함으로써 사서직의 정체성 확립에 순기능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정체성 확립은 사서직의 동기부여에 기여함으로써, 도서관 조직의 목적에 정(正)의 영향을 보이리라 판단된다. 이는 사서직의 전문직화가 그 목적이 사회적 인식의 확보가 주가 된다면 도서관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사서직의 전문직화는 사서직 집단을 위해 서뿐만 아니라 사서직 및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도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정리하면, 문헌정보학에서의 사서직의 전문직화의 주 목적은 사서직의 사회적 인식의 획득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른 전문직 이미지인 높은 수입과 권력의 확보에 대한 의도는 적어도 일차적으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문직화는 사서직이 도서관이라는 조직을 통하여 사회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데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는 전문직으로서 사서직의 특성 및 다른 전문직과의 차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사서직이 전문직이 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 4. 전문직으로서 사서직의 특성

우선 사서직의 특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전문직과 혼동하고 있는 용어들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문헌정보학의 논의에서 전문가와 전문직, 전문성과 전문직성이 혼

8) Identity, 사람이 환경이나 사정이 변해도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연세한국어사전).

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에 이용훈(2002)은 전문가와 전문직을 구분하여 논의하였으며, 전문가는 특정부분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개인으로, 전문직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간단히 구분하였다. 나아가 사서 개개인의 전문가화가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른 '전문성'은 전문가가 가지는 특성으로 전문적 지식, 한 분야에 대한 경험과 숙련도 등이 있다. 이에 비해 '전문직성'은 전문직이 가지는 특성으로 전문분야의 이론과 지식의 존재, 전문분야 서비스의 제공, 특정분야의 직업 및 소비시장의 독점, 직업 진입장벽의 존재, 국가권력의 지지, 직업집단내의 자율성, 직업윤리강령의 존재, 전문직단체의 존재 등등이 전문직성이 된다.

사서직의 제일의 목적은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의 제공에 있다. 이를 위해 사서는 정보자료의 수집, 분석, 축적, 보존 및 이용과 관계된 업무를 수행한다(한국문헌정보학회 최신 문헌정보학의 이해 편찬위원회, 2006). 이때 제공하는 '정보'는 문헌정보학 용어사전<sup>9)</sup>에 따르면 어떤 형태로 전달, 기록, 출판, 보급되는 아이디어, 사실 및 상상적인 일, 작용 등이며, 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의의미로 다양한 매체에 기록되어 도서관이 수집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Dictionar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up>10)</sup>에서 정보는 매체(medium) 혹은 표현(expression)에 의해 전달되는 메세지이며, 자료(library materials)는 도서관이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구입한 모든 품목들(items)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보는 무형의 것들로 어떠한 매체를 통해 기록되고 전달되는 것이고, 자료는 그런 정보가 기록된 다양한 매체들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정보의 전달수단에는 매체와 표현, 즉 자료라는 간접적 소통수단과 말이나 몸짓과 같은 직접적인 소통수단이 있다.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정확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대부분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라는 간접적 소통수단을 사용한다. 이는 직접적 소통수단이 정보의 축적 및 전달에 한계를 가지기 때문 일 것이다. 즉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를 입수하여 축적하고, 자료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직접적 소통수단 또한 참고서비스 혹은 정보서비스라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쓰이고 있지만, 이것이 전제 도서관 서비스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도서관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 자료를 입수하고 조직하고 축적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매체를 통한 정보의 제공은 사서의 업무가 개인적 업무가 아니라 조직적 업무의 특성을 띠게 하였다. 즉, 정보제공 서비스는 물리적 실체(자료)의 보유 혹은 소유(입수 및 축적)를 그 선결조건으로 하게 되었고, 이러한 자료의 소유 조건은 개인이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소유하기 곤란하므로, 도서관이라는 조직을 통한 정보제공서비스라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다량의 정보 자료의 처리와 제공을 위한 제 기능들(수집, 정

9) 사공철, 1996.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0) Joan M. Reitz, 2004. Westport, CT: Libraries Unlimited.

리, 축적, 및 이용)을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들을 조직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기본적으로 개인서비스직인 여타 전문직과는 달리, 사서직은 그 서비스의 제공을 조직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는 의미이다. 의사 개인의 서비스 제공장소를 의원(doctor's office)라고 하는 것과 달리 앞의 예처럼 일인사서의 서비스 제공장소를 일인도서관(one-person library)이라는 조직명을 사용하여 칭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또 다른 예는 사서직의 자격을 규정한 법에서 보여진다. 현행 도서관법<sup>11)</sup>에서 사서의 자격은 정확히 표현하면 '사서'의 자격이 아니라 '사서직원'의 자격(제6조)이며 도서관법 시행령<sup>12)</sup>에서 사서자격증은 '사서직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발급하도록 되어있다(제4조). 이때의 사서직원은 개인이라기보다는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이에 비해 의료법<sup>13)</sup> 제5조에는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발급대상으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법<sup>14)</sup>에서는 '변호사'의 자격과(제4조), 변호사 개업을 위한 개업등록을(제7조)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조문을 통해 사서직과 의료직/법률직의 차이를 살펴보면, 의사와 변호사는 개인적인 서비스 제공 활동을 전제하고 있지만, 사서의 경우 그 자격을 조직에 진입하는 자격(사서직원의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다. 즉, 이러한 법규정은 사서직 서비스의 조직 중심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은 조직과 전문직이라는 두 가지 직업정체성의 기반을 동일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사서 개인에게 직업정체성에 대한 근거로서의 전문직 집단과 조직이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직업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몰입(commitment)이라는 개념으로 논의되며, 대체적으로 조직내의 전문직종사자는 조직보다는 전문직업에 더 몰입하는 경향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이기은, 박경규 2002). 예를 들면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자신의 정체성을 '종합병원'이라는 조직과 '의사'라는 전문직에서 찾을 수 있고, 이때 '의사'라는 전문직에 더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에서는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몰입을 방해하는 직업정체성 기반을 약화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이러한 몰입의 역관계는 전문직 연구와 더불어 기업과 노동조합을 비교한 연구들에 기반 한 것이다. 즉 조직 몰입과 노동조합몰입간의 관계가 주 관심영역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문직의 경우 직업정체성이 조직몰입에 반드시 역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의가 제기된 바, 정동화(2001)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正)의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이기은과 박경규(2002)도 연구소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조직몰입과 전문직몰입의

11) 법률 8069호. 2006년12월20일 일부개정.

12) 대통령령 20506호. 2007년12월31일 일부개정.

13) 법률 8651호. 2007년10월17일 일부개정.

14) 법률 8321호. 2007년3월29일 일부개정.

정(正)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조직몰입과 전문직몰입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일반적으로 개인특성, 직무특성, 경력특성,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을 꼽고 있으며, 이중 직무특성으로는 개인-직무간 적합도(person-job fit), 직무도전성(job challenge), 직무자율성(job autonomy), 직무중요도(job significance) 등이 거론된다.

이러한 사서직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정체성에 대한 순기능적 관계는, 앞에서 언급한 바 대로 사서직이 대부분 사서로서의 직업정체성이 높고, 사서직 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 혹은 실망이 크지만(김용근 2005; 엄영애 2004) 이 단체의 가입율은 저조한 데서(엄영애 2004)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사서의 정체성을 전문직단체뿐 아니라 조직에서도 찾을 수 있으므로, 다른 전문직만큼 전문직단체에의 참여가 직업정체성의 확보에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전문직단체 참여 저조는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 사서직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적 인식의 결과일 수도 있다. 또한 1990년대 초중반에 활동하였던 전국사서협회 활동의 소강 혹은 소멸에도 이러한 조직정체성과 직업정체성의 관계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판단된다. 즉, 조직(도서관)의 연합(도서관협회)과 대비되는 개인(사서)의 연합(사서협회)의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한 원인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상으로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종합하면 사서직의 업무, 즉 서비스의 제공은 제공되는 서비스가 매체와 같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는 다양한 기능들의 통합을 통해 제공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개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라기보다는 조직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라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과 연관되어 사서직은 직업정체성과 조직정체성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다음에는 이러한 전문직 논의의 특성과, 사서직의 전문직화의 목적 및 정당성, 그리고 사서직의 전문직으로서의 특성을 기반으로, 전문직화를 위한 긍정적인 이론적 배경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 5. 사서직 전문직화 논의를 위한 개념

모든 분야의 전문직의 논의에서 전문직의 일반적 특성으로 이론을 기반으로 한 전문적 지식, 즉 학문의 존재는 항상 언급되는 것이며, 전문직화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학문은 그 전문직의 전문영역을 확보하도록 하여 여타의 직업과 특정직업을 구분하는 도구이기도 하며, 또한 비전문직에 대해 전문직의 “전문성”을 강조함으로써 전문직의 지위를 획득하고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더욱이 전문직 분야에 대한 이론적 기반은 전문직구성원 개개인에게 정체성을 확보케 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사서직의 이론적 기반으로 서 문헌정보학은 이론을 기반으로 한 전문적 지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는 문헌정보학의 학문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그 대답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본 연구의 중심을 받아내는 것이므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문헌정보학의 학문성에 대한 간단한 언급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학문은 어떤 분야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sup>15)</sup>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학문이 가져야 하는 요소를 두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분야” 즉, 특정영역 혹은 한 학문이 대상으로 하는 고유한 현상의 존재유무이고 다른 하나는 “체계적”, 즉 학문이 가지는 연구방법의 존재유무이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문헌정보학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문헌정보학은 그 만의 연구대상이 있으며, 그 연구대상은 대체로 정보현상이라 칭할 수 있다. 여기서 정보현상이란 대개 정보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개인적 사회적 현상을 의미하며, 정보의 생산, 요구, 이용, 유통, 축적, 조직 및 정보의 개인과 사회에 대한 영향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 물론 문헌정보학이 이러한 정보현상을 모두 다룰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문헌정보학은 그 학문 고유의 대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요소인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문헌정보학은 인문 사회과학 및 인문학, 공학,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예로는 전반적 사회조사방법, 실험법 및 유사실험법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검색 및 적합성 판정 등 정보행위에 대한 자료수집방법으로 유사실험법에서의 think-aloud 방법을 발전시켰다. 따라서 학문으로서의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은 확고하다고 판단된다. 즉, 사서직의 기반으로서의 문헌정보학의 존재 및 정체성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논의할 것은 전문직의 일반적 특성의 하나인 서비스, 즉 전문직은 사람에게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문헌정보학에서는 이를 봉사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봉사개념으로 전용하였으므로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견 도서관이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와 실물(product)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실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좀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료의 조직을 통한 적합한 현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실물을 생산한 것인지 서비스형태로 제공되는 것인지도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제공되는 정보자료가 도서관 혹은 사서가 생산 혹은 가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서비스는 마케팅분야에서 하나의 상품(good)으로 취급된다. 이때 서비스의 특성은 무형성(intangibility),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비분리성, inseparability), 이질성(heterogeneity)과 소멸성(perishability), 고객의 존재 및 참여 등을 들 수 있다(Kasper, et. al. 2006, 57-61). 여기서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므로 생산과 축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이질성은 제공되는 각각의 서비스가 다르다는 의미이다. 또한 소멸성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특성이며, 고객의 존재 및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은 서비스의 제공에는 고객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서비스에 대해 평가하며, 서비스의 제공자(개인 및 조직)의 인식을 형성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면 도서

15) 연세한국어사전.

관에서는 이용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누구인가를 파악하고, 이용자가 서비스와 그 도서관, 그리고 그 도서관의 사서에 대해 인식하는 경로와 대상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서비스의 강조는 서비스 수혜자인 이용자를 서비스의 중심에 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명감을 기반으로 한 봉사라는 개념은 그 봉사대상자의 만족 못지않게 봉사자의 사명감에 기반한 만족을 강조하게 되며, 이러한 사명감에 기반한 만족이 봉사자의 주요 동인이 되기 쉽다. 이와 반대로 서비스 개념의 강조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았을 때의 만족을 우위에 놓으며, 이용자의 만족이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동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도서관과 이용자의 교환(거래)을 시작하는 동기이며,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용자의 강조는 이용자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좀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즉 마케팅의 개념 및 도구를 도서관에 적용하기가 용이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논의할 사항은 사서직 혹은 도서관서비스의 특성으로 언급한바 있는 사서직의 조직 중심 특성과 사서직 논의의 개인성과의 관계이다. 사서직의 조직중심 특성은 사서직 서비스의 특성, 즉 매체를 동반한 정보의 축적과 제공,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기능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고유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조직적 제공에서 개인성을 강조하는 논의는 조직의 역할 및 이에 대한 논의를 축소하는 작용을 하리라고

판단된다. 개별사서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특성상 도서관의 조직적 동인이 필요하다. 이은철과 김갑선(2002)은 Q-방법론을 이용한 사서들의 스스로의 전문직 인식조사에서 일부 사서들의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갈등의 원인은 정보제공서비스의 개인적인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 불만족스러운 조직요인들(의사결정권의 축소 및 낮은 근무조건)에 기인한다고 결론지음으로써 도서관서비스에서 조직요인의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예를 제공하였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이러한 조직중심의 강조가 위의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직중심이라는 의미는 서비스제공의 주체가 개인보다는 조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형태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도서관의 의지보다는 서비스 수혜자로서의 이용자의 요구와 만족에 기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이용자중심의 조직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도서관경영의 기법 변화(윤희운 2007a)와 경영형태 변용성에 대한 연구(윤희운 2007b)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조직의 강조는 사서직의 전문직화의 목적과도 부합된다. 즉, 사서직의 전문직화를 통해 사서들은 사서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직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별사서의 성실성으로 인해 그 사서의 전문성은 이용자를 통해 인정받고, 그 사서는 전문가로 사회적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사회가 사서직을 전문직으로 인정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모든 개



별사서의 전문가화를 통한 전문직성의 확보 또한 실현가능성과 전문가와 전문직간의 관련성의 불명료함을 볼 때 효과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조직중심의 사서직 전문직화는 이용자에게는 어떠한 도서관, 어떠한 사서에게서든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제공한다. 따라서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리라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배경으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다. 직업군의 한 계층으로서의 전문직 그리고 전문직의 하나로서의 사서직이라는 시각은 사서에 대한 그리고 사서를 위한 시장이 존재함을 전제한다. 또한 사서직이 서비스직이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시장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시장이란 구성원이 존재하며, 구성원상호간에 각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교환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Kerin, et. al. 2006). 사서직의 서비스를 여기에 대입시키면 도서관과 이용자가 존재하며,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서관서비스가 존재한다. 여기서 명료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교환을 위해 이용자가 도서관에 제공하는 것의 존재일 것이다.

도서관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도서관 존재의 유지 및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예로 설명하면, 이러한 도서관 존재의 유지 및 성장에 대한 재원은 최종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일부이다. 이 때 납세자는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다른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용자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세금을 납부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두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는

데 그 한 가지는, 이용자는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시점 이전에 세금을 납세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납세자가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보험시장의 예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보험서비스의 소비자 또한 서비스 획득시점에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며, 보험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지속적으로 위험에 대한 보장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에 비한다면 세금의 납부는 소득이 일정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때 면제의 혜택이 있고(물론 직접세의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간접세는 납부를 할 것이다), 이러한 세금의 납부여부와는 무관하게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는 항상 제공 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보험서비스보다 이용자에게는 더 유리한 교환조건이 될 수 있다.

한편 여타 서비스의 교환에서 나타나는 등가교환, 즉 동일한 가치를 통한 교환이 도서관서비스에서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보험서비스는 보장(서비스)의 규모에 따라 소비자의 보험 납부액이 차이가 난다. 즉 보장의 규모와 보험 납부액은(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등가관계에 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서비스를 위한 세금의 납부는 이러한 기대 서비스의 가치의 크기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소득 혹은 소비와 연관이 있다. 이러한 도서관서비스의(이론적인) 부등가 교환은 다른 서비스 혹은 상품의 교환에서는 찾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법이 교환의 근거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법, 즉 국가의 지지가 항상 고정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법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법의 변화가 사회적 변화 혹은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도서관이 무관할 수 없다. 또한 정치적 변화의 극단적 형태는 선거를 통한 선출직 공무원의 교체로 나타나며, 선거는 유권자에 의해 행해진다고 볼 때, 유권자의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도서관서비스의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는 납세자이며 유권자라는 사실은 도서관서비스를 통한 도서관과 이용자의 교환을 밝히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즉 도서관서비스를 매개로 하는 도서관과 이용자 간의 교환은 직접교환 그리고 등가교환이 아니므로 교환의 존재가 명료하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여러 경로(납세 및 선거 등)를 거친 간접적인 교환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도서관과 이용자간에 교환이 존재하며, 따라서 도서관서비스를 매개로 한 시장의 존재는 부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도서관서비스의 시장은 공공서비스시장(public service market)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공공은 법에 의한 부등가교환을, 서비스는 정보의 제공을, 시장은 시장참여자로서의 이용자 및 교환의 존재를 각각 그 배경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사서직은 그 전문직성의 확보를 위해 이러한 도서관 서비스의 간접적인 교환형태의 부각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우선 전문직을 위한 전문적 지식, 즉 학문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향후 전문직 논의를 위한 이론적 개념들로서 서비스에 대한 개념, 이를 통한 이용자 중심적 사고, 도서관서비스의 조직중심특성, 이용자중심적 서비스형

태와 조직중심적 서비스제공 간의 관계, 그리고 도서관서비스 시장의 개념과 실제의 파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6. 결론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한국 사서직의 전문직화 혹은 전문직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핌으로써,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성화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전문직화의 목적은 사서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획득하는 것으로 상정하였으며, 이 경우 사회적 인식의 획득은 사회의 변화 및 다양성에 따라 지역별, 시대별, 분야별로 차이가 있음을 가정하였다. 또한 여기에서 사서직이란 문헌정보학 관련 정보전문직 및 사서의 자격을 가진 집단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사서직에 정체성을 가지는 개인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서직에서의 전문직논의의 특징으로는 기능주의적, 봉사정신 및 이타성의 강조, 개인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서직화의 개인중심적 사고가 사서직의 업무 동인으로서의 봉사정신 및 이타성의 강조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기능주의적 관점의 강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진다. 한편 사서직은 전문직화를 통해 사서직의 사회적 인식을 확보하는 데에 그 주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서직의 전문직화는 사서업무의 동기부여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사서직의 도서관을 통한

사회적 역할에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된다. 한편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 업무의 특성은 매체를 이용한, 그리고 제 기능을 통합한 정보의 축적 및 제공이라고 보았을 때 사서의 정보서비스는 도서관이라는 조직을 통한 서비스제공을 일반적인 업무형태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서직의 정체성은 조직 및 전문직에서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형태가 되었으며, 조직몰입과 전문직몰입이 긍정적 관계를 보인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사서직의 전문직논의에 필요한 이론적 개념들로 전문적 지식(문헌정보학), 서비스, 조직중심, 그리고 시장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았다. 학문으로서 문헌정보학은 그 고유의 현상과 연구방법의 존재를 통해 사서직을 위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비스의 개념은 상품으로서의 서비스의 특성을 통해 이용자중심 관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이 결국 이용자에게 있음을 논의하였다. 또한 사서의 정보서비스의 조직중심적 특성은 조직적 활동을 통한 도서관서비스의 제공을 강조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서비스 시장의 존재를 시장 참여자(도서관과 이용자)와 그들의 간접교환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시장의 규명 및 강

조를 통한 도서관서비스의 강화, 그리고 이를 통한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의 사회적 인식 획득에 대한 논의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깊게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여기에서 제시된 개념들이 현재 도서관서비스를 둘러싼 현상 및 그 원인의 파악에도 어느 정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론적 배경의 고찰에서, 이론이 다양한 현상을 일반적인 틀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론이 포함한 각각의 개념들은 여러 현상과 연결되어 강화될 수도, 부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서직에 대한 전체적인 이론적 논의를 위해 각각의 개념과 연결된 현상들은 대부분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논의된 하나하나의 개념들은 향후 연결된 현상과 결부되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그러한 논의들은 본 연구가 제시한 개념들과 부합하는 것이든 상치하는 것이든 간에 사서직의 전문직 논의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전문직 논의를 위한 이론적 배경 및 개념의 제시는 논쟁을 촉발할 염려도 있으나, 뒤집어 보면 발전적 논의를 위한 문제의 제기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구본영. 2003. 『문헌정보학입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구혜란. 2003. 전문직 자율성의 사회경제적 토대: 이론적 접근. 『한국사회학』, 37(2): 231-248.
- 김용근. 2002. 한국 사서직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4): 283-306.

- 김용근. 2005. 한국 사서직에 대하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1-20.
- 김혜경, 남태우. 2004. 한국 사서직의 윤리규정 방향 제안 『정보관리학회지』, 21(4): 329-352.
- 남태우. 1996. 사서직의 전문성과 국가고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제3회 한국정보관리학회 논문대회 논문집』 115-118, 『제3회 한국정보관리학회 논문대회』, 1996년 8월 16-17일. [서울: 중앙대학교].
- 박인용. 1997. 한국 사서직의 전문직화 연구. 『도서관학논집』, 25: 207-223.
- 박종연. 1993. 한국 의사의 전문직업성 추이: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7: 219-244.
- 신민식, 권중생. 2006. 『경영의 이해』. 파주, 경기도: 법문사.
- 안인자. 2005. 사서직 업무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1): 233-246.
- 엄영애. 2007. 미국과 영국 정보전문직 교육현황의 비교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4): 277-298.
- 엄영애. 2004. 사서직의 전문직 요건과 수행업무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159-175.
- 엄영애. 1998a. 미국, 영국, 한국 사서직 교육의 비교 『도서관학논집』, 27: 1-25.
- 엄영애. 1998b. 도서관계의 경향과 사서직 교육의 변화. 『도서관학논집』, 29: 141-169.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2006. 문헌정보학이란. <[http://lis.yonsei.ac.kr/int\\_int.html](http://lis.yonsei.ac.kr/int_int.html)>로부터 2008.2.5일 검색.
- 윤소정. 1998. 사립대학교도서관 사서직 직원의 계속교육 실효성에 관한 연구: 인터넷과 전산 OA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 8: 157-178.
- 윤영대. 2003. 의학사서직의 교육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1): 131-146.
- 윤희윤. 2007a. 도서관 경영패러다임과 기법의 변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3): 5-23.
- 윤희윤. 2007b. 공공도서관 경영형태 변용성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4): 5-28.
- 윤희윤. 2005a. 영미 및 한국의 사서직제 분석과 시사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2): 121-140.
- 윤희윤. 2005b. 한국 사서직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45-73.
- 이기은, 박경규. 2002. 전문직종사자의 조직 및 전문직업에 대한 이중몰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평행모형을 이용하여. 『경영학연구』, 31(2): 551-574.
- 이명희. 디지털도서관에서의 사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2: 270-290.
- 이병목. 2004. 참사서가 되려면. 『도서관문화』, 45(9): 46-67.
- 이용훈. 2002. 사서의 전문성 강화 방안. 『도서관』, 57(1): 17-39.
- 이은철, 김갑선. 2002. 사서직의 직업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25-47.
- 이제환. 2003. 전문직 이론을 통해 본 사서직의 전문성.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 57-87.
- 임동빈. 2001. 사서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계속교육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4): 51-77.

- 전명숙. 1996. 사서직의 전문성과 성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3(2): 165-187.
- 전병재, 안계춘, 박종연. 1995. 『한국사회의 전문 직업성 연구』. 서울: 사회비평사.
- 정동열, 조찬식. 2007. 『문헌정보학 총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정연경. 1995. 정리부서 사서직의 임용조건: 1970년부터 1995년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제2회 한국정보관리학회 논문대회 논문집』143-146, 『제2회 한국정보관리학회 논문대회』, 1995년 8월 10-11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 조찬식. 1996a. 사서직 공무원 인사체계의 문제점. 『제3회 한국정보관리학회 논문대회 논문집』107-110, 『제3회 한국정보관리학회 논문대회』, 1996년 8월 16-17일. [서울: 중앙대학교].
- 조찬식. 1996b. 우리나라 사서직의 역사적 발전: 1961년에서 1979년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3): 67-84.
- 최상희. 2007. 사서직 구인광고에서 나타난 교육 사서 직무와 역량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3): 201-215.
- 한국도서관협회. 2005. 가입안내. <<http://www.korla.or.kr/member/guide.asp>>로부터 2008.2.6 검색.
- 한국문헌정보학회 최신 문헌정보학의 이해 편찬위원회. 2006. 『최신 문헌정보학의 이해』.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황옥경. 2006. 대학도서관 사서직 계속교육 프로그램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2): 173-190.
- Calhoun, Craig, Ed. 2002. Dictionary of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arter, Chris. 2007. Professions, organized. In George Ritzer Ed. The 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ology. Vol. 7(N-P).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 Dessler, Gary. and Frederick A. Starke. 2004.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Tomorrow's Leader. 2nd Canadian Edition. Toronto, ON: Pearson Education Canada Inc.
- Elias, N. 1964. professions. In Julius Gould & William L Kolb Ed. A Dictionary of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NY: The Free Press.
- Kasper, Hans; Piet van Helsdingen; Mark Gabbott. 2006. Services Marketing Management: A Strategic Perspective. 2<sup>nd</sup> Ed. West Sussex, UK: John Wiley & Sons Ltd.
- Kerin, et. al. 2006. Marketing. 8<sup>th</sup> Ed. New York, NY: McGraw-Hill/Irwin.
- Macdonald, Keith M. 1995. The Sociology of the Professions. London, UK: Sage Publications Ltd.
- Roos, Patricia A. 1992. Professions. In Edgar F. Borgatta & Marie L. Borgatta Ed. Encyclopedia of Sociology. New York, N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White, Kevin. 2006. profession. In Bryan S. Turner ed. The Cambridge Dictionary of Sociolog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